

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목           | Persia from the Earliest Period |
| 발행언어         | 영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발행처          | Ozymandias Press                |
| 발행일          | 2016. 5. 17.                    |
| 저자           | W. S. W. Vaux                   |
| 출판국가         | 캐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페이지수         | 파일크기: 1050 KB<br>인쇄면: 120       |
| ISBN 또는 ISSN | ASIN: B01FQZPVG6                |

**내용 요약**

페르시아의 역사는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같이, 한 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역사를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. 그러다가 키루스 대왕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우고 난 후 페르시아의 역사 자체가 세계사에 부각되기 시작한다.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조가 사라진 후 페르시아인 중심의 사산 왕조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다. 정복당한 페르시아가 정복자로서의 위상을 얻는 것이다.

페르시아 역사에서 언급되는 가장 이른 시기와 관련하여 이 책의 저자 보우(W. S. W. Vaux)는 종교적인 교리와 계명을 새겨놓은 기념비적인 비문 내용을 근거로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 페르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.

『최초창기 시대의 페르시아』에서 보우는 히브리 구약성서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 이후 여러 민족들이 각 지역에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유도한다. 따라서 『최초창기 시대의 페르시아』는 페르시아 역사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그 근거와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전사(前史) 관련지식을 섭렵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.